

韓國電力公社의 企業理念과 具現方案

The Ideology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the Way to Fulfill it

李 京 三

韓電 企劃管理處 綜合調整部長

1. 序 言

1887년 봄 지금의 景福宮內 향원정 연못가에서 우리나라 最初로 發電機에 의해 電燈이 點燈된지 어언 100年이 지났으며, 이제 電氣 2世紀의 새로운 章을 여는 歷史的인 時點에 서 있다.

지난 1世紀 동안 電氣는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生活의 向上에 절대적인 寄與를 해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電氣 2世紀를 展뒹할 때 電氣의 역할은 더욱 급속히 增大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電力事業의 主体인 韓國電力公社는 이러한 電氣의 역할 增大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技術自立과 技術革新을 통하여 國家에너지 自立을 이룩하며 나아가 人類文化發展에 적극 寄與하고자 하는 뜻에서 企業理念을 “電力文化의 暢達”로 設定하게 되었으며 이는 時宜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런데 “電力文化”란 개념은 아직 우리 學界에서조차 생소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理論的인 研究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韓國電力公社는 企業理念을 “電力文化의 暢達”로 정한 것을 계기로 지난 '86年 9月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서울 大學校 經營大學附設 經營研究所와 공동으로 “電力文化”에 관한 理論定立과 具體的인 具現方案을 研究, 樹立한 바 있다.

이 誌面을 통하여 同 研究報告書 內容을 중심으로 企業理念의 意義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韓國電力公社의 企業理念인 “電力文化의 暢達”과 그 具現方案을 略述하고자 한다.

2. 企業理念의 意義와 必要性

人間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문제가 人間의 삶의 方向과 指針을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企業에 있어서도 企業이 생겨난 目的이 무엇이며 社會의 한 制度로서의 企業이 어떤

모습을 지닐 때 그 企業이 社會속에 受容되고 企業內的 모든 구성원들의 共感帶를 形成하며 共同體로서 一體化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企業理念의 定立을 통해서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企業이 社會的 存在인 이상 企業理念은 社會의 基本的 價値體系인 社會理念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企業의 目標, 經營理念 등과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企業理念의 設定은 對外的으로는 企業의 社會的 役割과 책임을 나타내 줌으로써 企業의 社會性和 存在理由를 명확히 하여 企業의 對外的 活動에 대한 社會的 受容도와 企業 이미지를 向上시키며, 對內的으로는 企業活動의 長期的 方向을 提示함으로써 組織活動의 求心點을 形成하고 構成員들의 自負心과 긍지를 높여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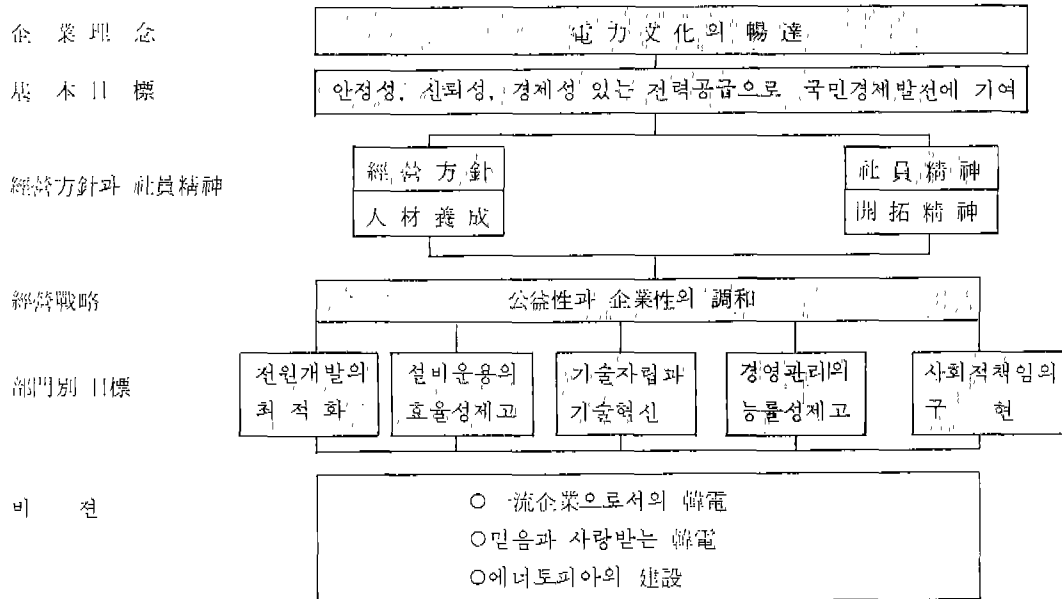
3. 韓國電力公社의 企業理念인 「電力文化的 暢達」

가. 設定背景

韓國電力公社는 그간 公社法에 明示된 「安定된 電力供給으로 國民經濟發展에 寄與한다」는 設立目的을 성실히 수행해 오면서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生活의 向上에 중요한 役割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尖端產業의 發達과 더불어 高度情報社會의 到來, 人間生活의 質的 向上과 多樣化에 따라 電氣가 人類文化의 創造·發展에 기여하는 몫이 지금까지 보다 더 커질 것임은 누구나 쉽게 豫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安定된 電力供給」이라는 消極的 目標만으로는 電力事業에 대한 時代的 要請에 副應할 수 없게 되었으며, 電力事業의 基本目標를 포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電力을



註: 經營方針은 '87年末 “最善의 奉仕”와 “創意的 經營”으로 변경되었음

(그림 1) 經營의 基本體系圖

통하여 人類文化의 創造·發展에 기여코자 하는 더 높은 차원의 理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電力公社는 '85年度에 2000年代를 向한 長期綜合經營計劃을 樹立하면서 企業理念인 電力文化의 暢達을 포함한 經營의 基本體系를 그림 1과 같이 定立하였다.

나. 電力文化의 本質

에너지가 人類文化의 物質的·精神의 進歩의 礎石이 된다는 文化進化論者의 주장을 受容하지 않더라도 電氣의 實用化가 이루어진 19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人類文化의 進歩에 있어서 電氣의 寄與度는 거의 絶對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現代文明의 기틀을 다져온 電力의 文化要素로서의 有益한 特性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電氣 에너지는 풍부하고도 多樣한 1次 에너지의 變換에 의해 生産되는 2次 에너지이다.
- ② 電氣 에너지는 1次에너지源과 最終消費現場을 분리시켰으며 供給과 消費의 同時性을 가져 왔다.
- ③ 電氣 에너지는 열, 빛, 動力, 전파 및 화학 에너지로 變換되어, 利用되는 媒介的 에너지이며 그 이용영역이 무한히 확장된다.
- ④ 電氣 에너지는 스위치의 조작에 의해 利用되는 실로 편리한 에너지이며 그 調節의 우수성으로 인해 精密·尖端技術의 發展을 가능케 한다.
- ⑤ 電氣 에너지는 最終消費場所에 있어서는 깨끗하고도 公害가 없는 에너지이다.

電氣 에너지는 이와 같이 에너지의 量的 擴大뿐만 아니라 質的 變換을 가져오게 한 特性 때문에 人間生活을 時間的·空間的으로 擴大시켰을 뿐 아니라 人間의 肉體的·精神의 能力 그 自体에 增幅效果를 가져왔다.

따라서 電力文化로 認識될 수 있는 文化의 영역도 단순히 物質文化에 局限되지 않고 電氣 에너지를 媒介로 하여 直·間接的으로 創出되고 傳承되는 모든 生活樣式이 電力文化의 범주에 포함된다.

電氣 에너지에 의해 創出되는 物質文化, 즉 工場自動化, 事務自動化, 家庭自動化 및 電氣通信의 發達 등은 生産, 事務, 家庭生活의 便利를 도모하는 物質的 成長에 그치지 않고 人間關係, 예컨대 家族關係, 國際關係에 영향을 미쳐 核家族化와 地球村의 形成을 進展시키며, 또한 藝術, 宗教 및 倫理 등 觀念文化의 變化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같은 認識의 바탕위에서 電力文化는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電力文化란 電氣 에너지에 의한 時間的 擴張, 空間的 확대 및 人間能力의 확대를 통해 直·間接的으로 창출되고 계승되는 人間生活 樣式으로서 더욱 더 풍요로운 새 生活을 創造하는 文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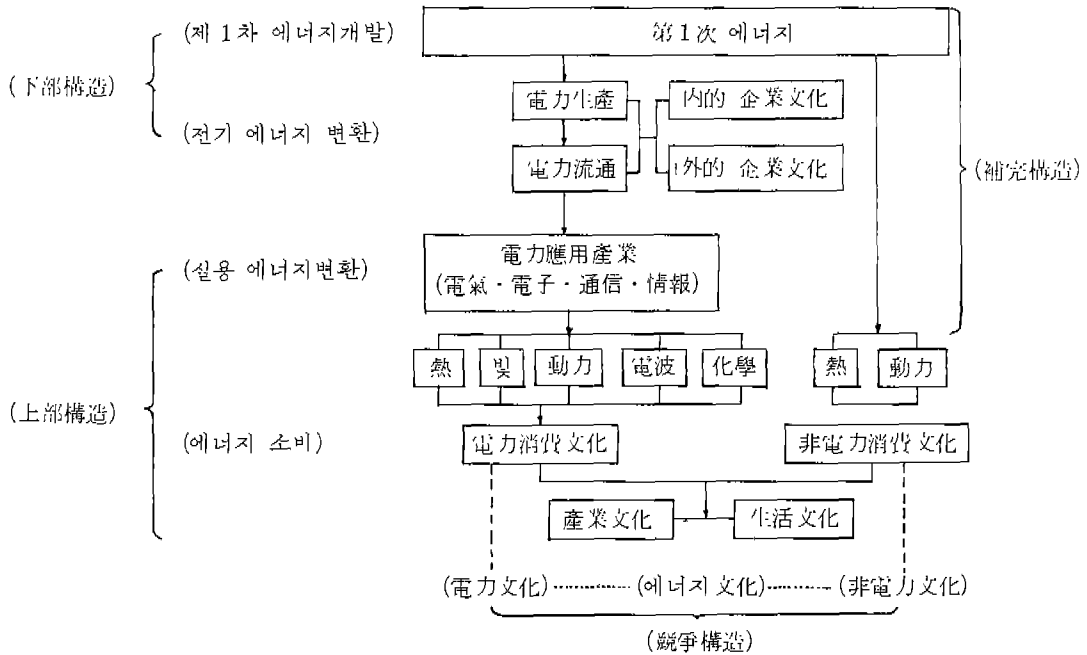
이러한 電力文化의 段階別 및 相互作用關係別로 그 構造를 圖解하면 그림 2와 같다.

다. 電力文化 暢達의 基本體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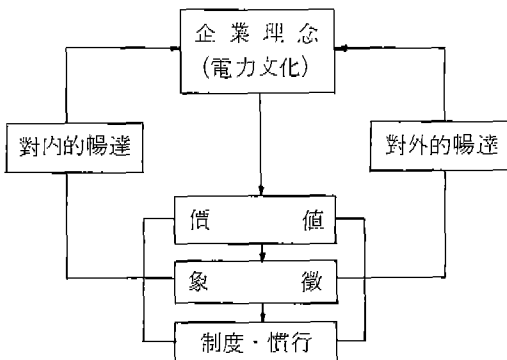
電力文化 暢達의 基本體系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같이 電力文化의 本質 1: 文化暢達의 핵심요소인 價値, 象徴 및 制度·慣行次元에서 그 特性과 問題點을 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그림 4와 같이 對內的으로는 構成員의 潛在力의 活性化를 도모하여 共同經濟體를 形成하며 對外的으로는 産業社會 잠재력의 活性化를 통하여 福祉社會를 建設하는 것을 基本 戰略으로 하여야 한다.

4. 電力文化 暢達을 위한 課題와 方案

가. 電力文化의 시스템, 暢達主体 및 課題



〈그림 2〉 電力文化의 構造圖



〈그림 3〉 電力文化 暢達 体系圖

暢達對象으로서의 電力文化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電力文化 暢達의 主体를 確認하고 그 主体들이 電力文化에 기여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理解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떤 현상을 投入(Input), 過程(Process), 産出(Output) 및 情報의 흐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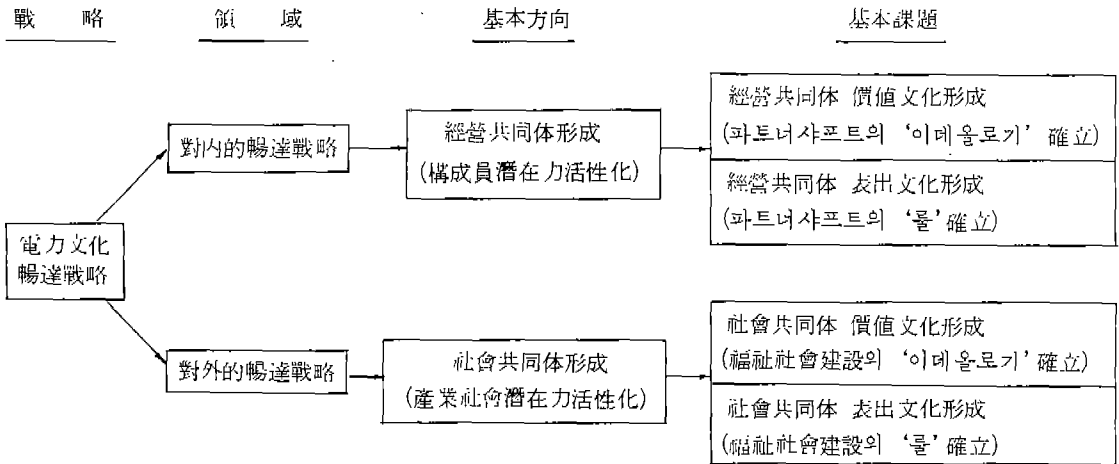
로서의 피드백 (Feedback)으로 分解하는 시스템적 接近方法으로 電力文化를 分解하면 다음과 같다.

(1) 電力文化의 投入(第1次 에너지源의 開發과 電氣 에너지로의 變換)

電氣 에너지를 産出하기 위한 基礎資源의 獲得과 基礎資源의 變換을 통한 電氣 에너지의 生産이 電力文化의 投入으로 인식될 수 있다. 풍부하고 效率的인 基礎資源(理想的으로는 無限하고 再生 가능한 에너지)의 확보가 電力文化 暢達을 위한 礎石이 된다.

또한, 基礎資源으로 부터 電氣 에너지로의 變換의 效率性을 높이고, 商品性을 提高하는 것이 基礎資源上的 限界를 극복할 수 있는 方向이 될 것이다.

投入에 있어서의 主体는 에너지 開發事業, 發



〈그림 4〉 電力文化暢達戰略 體系圖

電事業, 電力生產器機産業 등이 있다.

(2) 電力文化的 創出過程 (實用 에너지로의 變換)

電氣 에너지의 活用領域을 확대하고 電氣 에너지의 消費經濟性을 도모하는 部門이 電力文化의 創出 過程으로 인식될 수 있다.

電氣産業, 電子産業, 情報通信産業이 電力文化의 過程을 主導하는 産業이며, 우리가 피부로 접할 수 있는 電力文化란 바로 이러한 過程에서 開發된 電氣利用 技術의 高度化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3) 電力文化的 產出 (電力消費文化)

電力文化의 產出이란 곧 電力消費文化를 뜻한다. 工場, 事務 및 家庭生活의 自動화, 이러한 諸變化로 수반될 超産業社會, 脫産業社會, 高度情報化社會 등이 電力文化의 產出로서 認識될 수 있는 現代 및 未來社會의 性格이다.

(4) 電力文化的 피이드백

電氣 에너지의 效益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情報가 電力消費部門으로 부터 다시 投入과 過程部門에 入力되어 電力文化의 進步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으로 電力文化의 시스템을 살펴 보았거니와 各 過程別 暢達主体와 課題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여기서 暢達對象으로서의 電力文化란 제 1차 에너지자원개발, 電氣 에너지로의 變換, 實用 에너지로의 變換 및 電力消費文化의 4 부문으로 認識할 수 있다.

나. 電力事業者의 電力文化 暢達을 위한 課題와 方案

本稿가 電力事業의 企業理念과 그 具現方案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各 過程別 暢達主体와 課題中 電力生產機關인 韓國電力公社의 課題와 方案을 中心으로 論하고자 한다.

韓國電力公社는 電力文化 시스템에 있어서 1차 에너지를 電氣 에너지로 變換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電氣 에너지로의 變換의 效率性,

구분 시스템 개념		電力文化 시스템의 흐름	暢達 主 体	課 題
投 入	제 1차 投 入 人	제 1차 에너지 자 원 개발	· 에너지 개발기관 ·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의 경제성 · 재생가능성 · 비공해성 · 무한성 도모
	제 2차 投 入 人	電氣 에너지 變 換	· 전력생산기관 · 전력생산기기산업 · 전력계통기기산업	· 변환효율성 · 商品性 · 신뢰성 · 안전성 · 경제성 도모
過 程		實用 에너지 變 換	· 전기산업 · 전자산업 · 정보통신산업	· 변환효율성 도모 · 전기이용영역확대 · 生活의 質 향상
產 出		電力 消費 文 化	· 一般産業 · 生活者	· 전기이용의 합리성 도 모 · 電力文化의 방향성 제 시
피이드백 (피이드포워드)			· 시스템의 全要素	· 상호유기적 연계를 위 한 바람직한 정보교환

〈그림 5〉 電力文化의 단계별 暢達主体와 課題

商品性, 信賴性, 安定性 및 經濟性을 도모하여야 하는 直接的 責任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電力文化 시스템上的 各 過程別 主体들은 다른 主体들과의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협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 유일의 電力事業体인 韓國電力公社는 各 主体들과의 긴밀한 協助와 支援으로 電力文化 暢達에 先導的 役割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認識에서 韓國電力公社의 電力文化 暢

達을 위한 과제와 方案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對內的 課題와 戰略

企業理念 具現을 위하여 對內的으로는 經營共同體를 形成하여 一体感을 造成하고 構成員의 潛在力을 活性化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構成員들의 目標과 組織의 目標을 合致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는 강한 企業文化를 形成함으로써 可能해지는 것이다.

強한 企業文化 形成을 위하여는 企業文化의 현상 및 적합성 분석과 현재 · 미래의 여건 분석,

그리고 경영 시스템의 強·弱點 分析 등을 바탕으로 理想的인 企業文化의 틀을 設定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價値, 象徴, 制度·慣行 등의 제반 企業文化 要素들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각 문화요소별 戰略을 보면,

첫째, 價値文化 暢達을 위해서는 受動的, 保守的, 保身主義的 價値觀을 能動的 積極的, 改良主義的 價値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意識改革運動을 展開하고 經營方針, 社員精神 및 行動指針등을 企業理念에 적합성을 갖도록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象徴文化 暢達을 위해서는 電力事業의 發展過程에서 形成되었던 象徴을 발굴하고 現在의 象徴을 未來의 觀點에서 再解釋하여 韓國電力公社 特有的 強한 象徴文化를 形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口頭象徴, 物的象徴 및 活動象徴등 제반 象徴文化間의 一貫性 維持와 함께 象徴이 價値信念 및 制度의 特性과 부합되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세째로 制度慣行文化 暢達을 위해서는 制度慣行文化의 中心領域인 報償文化의 暢達을 통하여 構成員의 潛在力을 開發·動機化 해 가나가야 한다.

報償文化의 暢達을 위해서는 人事機會의 均等性, 人事配分의 公定性, 人事制度의 民主性을 이룩하고 共同体指向的인 勞使關係를 확립해야 한다.

(2) 對外的 課題와 戰略

對外關係 改善을 통한 電力文化 暢達을 이룩하기 위하여 韓國電力公社는 供給者, 地域社會 需用家 및 國民과 관련하여 電力事業에 賦課된 社會的 責任을 完遂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로, 規定電壓과 定格周波數를 유지하고

停電時間을 減縮하여 良質의 저렴한 電力을 安定的으로 공급하고 顧客에게 最善의 奉仕를 提供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供給者와 研究機關과의 협력체제를 強化하여 技術自立 및 開發을 통한 에너지 自立을 이룩해야 한다.

세째, 電源施設과 地域住民과의 一體感形成을 위하여 地域住民의 生活對策支援과 아울러 地域社會 開發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또한 國土環境의 保存努力과 아울러 國民福祉 增進, 社會間接資本 支援, 藝術教育 振興等 電力事業과 間接적으로 관련되거나 無關聯分野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로, 電力의 消費側面에서 未來의 技術社會에 對備하고 健全消費 패턴의 開發支援과 普及 努力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韓國電力公社의 對外的 이미지 및 國民들의 信賴感을 높이기 위한 弘報의 強化가 필요하다.

5. 맺음 말

이상으로 電力事業의 企業理念과 그 具現方案을 略述하였다.

電力文化란 概念이 일반인에게 아직 생소하고, 電力文化 暢達을 위한 여러 主体들의 認識도 아직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本稿는 우선 電力文化 暢達을 위한 電力事業者의 課題와 方案을 中心으로 해서 概略的으로 記述하는 데 그쳤으나 向後 電力文化와 관련된 여러 主体들의 창달방안도 연구되어 相關분야 모두가 서로 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電力文化의 暢達을 具現함으로써 國民生活 向上은 물론 더 나아가 人類文化 發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